



제23대 노조 출범...회사 경쟁력 강화에 매진 방송진출.사옥재건축.뉴미디어사업 “한치 오류 없도록”

제23대 연합뉴스 노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3월 1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노조 출범식에서 문성규 신임위원장은 “글로벌 차원의 무한경쟁이 격화되는 지식혁명 시대에 회사의 장.단기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며 “이는 우리 노조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들의 신분보장, 권익강화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로를 띄우고 소통을 활성화해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박정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최상재 연노련위원장, 노조 신임 집행부와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몇 년 전 국가기간통신사가 되기 위해 노조원들이 문화관광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노사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난다”며 “미디어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합심해서 큰 일을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월 23~24일 집행부 MT를 갖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3월 15일 오후6시 1층 로비에서 열린 제23대 집행부출범식에서 문성규 신임 위원장이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우선 방송 진출과 사옥 재건축, 뉴미디어 사업 등 회사 현안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조의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출금 한도를 높이고 편집국 숙직 시스템을 개선 연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5월 14일 제1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주요사업내용과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하는 등 조합원 복지 향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봉사원의 노조 가입 문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성규
- 부위원장 김일중(네트워크부)
- 이강일(대구경북취재본부)
- 사무국장 강영두
- 총무부장 김상민(전산부)
- 교육부장 심재훈(경제부)
- 쟁의부장 이정진(특별취재팀)
- 조직부장 윤종석(사회부)
- 조사부장 안 희(산업부)
- 복지부장 임동근(출판부)
- 홍보부장 권수현(산업부)
- 여성부장 황희경(문화부)
- 지방부장 형민우(광주전남취재본부)

공보위간사 이주영(국제뉴스2부)

- 운영위원 양태삼(한민족뉴스팀)
- 이봉준(증권부)
- 이주영(국제뉴스2부)
- 옥 철(스포츠레저부)

특위간사 도광환(사진부)

- 감 사 이동철(스포츠레저부)
- 김길원(미디어과학부)

“공정보도는 연합뉴스의 자존심입니다”

노조 공보위 발족.. 간사에 이주영 차장

공정보도는 연합뉴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사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연합뉴스는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공정보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권력과 자본은 언론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그릇된 욕구를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보도가 필수적입니다.

연합뉴스 가족 여러분!

내가 일하는 부서나 다른 부서 기사의 공정성에 불만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공정보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지 않았나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침묵하지 않았나요?

공정보도위원회가 귀를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 감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보도는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제언과 제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보위는 연합뉴스의 보도활동 전반에서 특정집단이

나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옹호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시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또 연합뉴스 보도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공보위 운영규칙 4조)

공보위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 소외계층 보호, 사회갈등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아 정의롭고 올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기사를 매월 ‘이달의 참글상’으로 선정해 시상합니다.(공보위 운영규칙 8조)

공정보도 확립은 노조뿐 아니라 사측에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조와 회사는 이를위해 지난해 노사 각각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발족해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는 공보위 조사와 논의를 거쳐 회사측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여기 공정보도 심부름꾼으로 일할 공보위원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들겠습니다.



최전선에서 - 천안함 사건 취재 후기

시린 봄의 백령도, 그 잊을 수 없는...

숙소 잡지못해 포구 민박집 거실서 첫날밤

천안함 침몰 다음날인 3월 27일, 백령도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여객선이 가 닿은 용기포항은 천안함 침몰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100명 가까운 기자들이 몰려든 백령도는 그야말로 '취재 전쟁터'였다.

읍내의 모텔이나 사고 해역 인근 장촌포구의 민박집은 기자들로 가득찼다.

사회부 김남권 선배, 수습 임병식씨와 나는 미처 숙소를 잡지 못해 민박집 거실에 이불을 깔고 백령도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백령도에서 기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동원해 취재 현장을 뛰어다녔다.

렌터카는 진작에 다 팔려 알음알음 주민들의 개인 차량이 동원됐고 백령도에 있는 택시 8대도 모조리 '마와리 차'가 됐다.

택시가 귀해지니 기사들 사이에서는 '담합'이 벌어졌다. 초기 10만원이던 1일 대절 비용이 슬그머니 15만원으로 올랐다.

우리도 함미 인양 때까지 택시 1대를 빌려 용기포항과 장촌포구, 중화동포구, 연화리 등을 오갔다.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수색 작업이 펼쳐진 바다에서도 후끈 달아올랐다.

사고 해역의 작업 모습을 영상에 담아야 하는 방송사 취재진은 조업 제한 조치에 발이 묶인 어민들의 어선을 하루 수십만원씩 주고 빌려 사고 해역에 나갔다.

취재경쟁이 지나치자 해군 관계자들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중간에 백령도팀에 합류한 사회부 안홍석씨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릴 정도였다.

"취재경쟁 살아남으려고 어업 지도선 띄워"

물론, 연합도 그 취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무리수를 둔 적이 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되기 하루 전인 4월 1일, 풍랑주의보로 여객선도 뜨지 않는 바다에 웅진군과 백령면에 '간곡히' 부탁해 어업지도선을 띄웠다.

수색 작업을 위해 대청도로 피항한 쌍끌이 어선을 타고 단독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풍랑주의보가 해제돼 여객선이 뜨면 서방송사 취재진이 대청도로 건너와 단독 취재는 물건너 갔지만 하루 먼저 도착해 쌍끌이 선장들과 쌓아 놓은 친분은 큰 보탬이 됐다.

쌍끌이 어선 '태평양호'를 타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날은 잊을 수 없다.

'순가락까지 건져올린다'는 쌍끌이 어선이라 천안함의 첫 실종자를 건져 올릴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다.

기대만큼 마음의 긴장과 부담은 더 컸다. 실종자를 확인하자마자 회사에서 강조하는 '1보'를 날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쌍끌이 어선들은 백령도 앞바다의 고르지 못한 바닥 지형에 그물망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

젊디 젊은 목숨들 스러진 함미 인양..착잡

취재진은 함수.함미 인양 작업에 들어간 순간부터 민간 인양 업체 관계자들과 전화 씨름을 해야 했다.

작업 내용과 어려움을 물어봐야 하는데 바다위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라 전화밖에 취재 수단이 없었다. 그것도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푹푹 끊기기 일쑤였다.

함미 인양의 D-Day, 천안함 침몰

20일 만인 4월 15일.

아침부터 서둘러 신민재 선배와 김남권 선배는 용기포항으로, 나와 최우정 기자는 용트림 전망대 쪽으로 이동했다. 용트림 전망대는 인양작업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대형 해상크레인에 연결된 함미가 천천히 물위로 올라왔다. 전망대에 선 150여명의 취재진과 경찰, 공무원, 주민 모두 긴장의 눈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다.

녹색 그물로 절단면을 가린 채 다시 세상에 나온 함미, 마치 내가 건져 올린 것처럼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착잡함이 몰려왔다. 46명의 아까운 목숨이 저 차가운 쇠덩이 안에서, 차디찬 물속에서 스러져 갔구나!

'연합뉴스 백령도 부스' 해경 백령출장소에 감사

함미 인양후 이틀 뒤, 백령도를 떠나는 날. 훌가분하기도 하고 함수 인양까지 보지 못해 아쉽기도 했다.

그동안 신세를 진 해경 백령출장소에 인사를 했다.

백령 출장소는 그동안 '백령도 연합뉴스 부스' 역할을 했다.

매일 아침 출근도장을 찍는 연합뉴스 기자들에게 장소뿐 아니라 커피와 백령도 특산품인 약썩.다시마젤리, 심지어 타사가 탐내는 '쌍안경'까지 제공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백령.대청.소청 파출.출장소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기자들을 태우고 매일 사고해역을 드나들고 대청도를 오간 웅진군 소속 어업 지도선, 행정선 직원들도 말 못할 고충이 많았을 것이다.

백령도를 나와 인천에 도착하니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29일, 천안함 침몰 34일만에 46 용사의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원인을 밝힐 일이 남았지만 이로써 한 달 넘게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천안함 침몰사건은 마무리 되어 간다.

백령도에서 몸소 부대끼며 취재한 나 자신을 포함해 온 국민은 천안함 침몰의 아픔과 용사들의 희생, 그 속의 눈물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백령도에도 이제 슬슬 봄기운이 퍼지리라.



송진원 인천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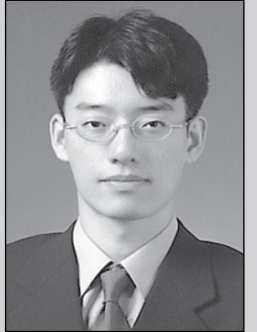




최전선에서 - 천안함 사건 취재 후기

“모든 기사 중심잡고 리드했다고 자부”

“한 달간 6시 출근에 새벽 1~2시 퇴근..잠 부족에 눈 싹뺏줄 터져”



이상현
정치부

3월26일.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향하던 주말을 앞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간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 15개월짜리 아기와 씨름하다 재운 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그야말로 ‘카우치 포테이토(couchpotato)’였던 내 눈앞에 ‘서해서 초계함 침몰 중’이라는 굵은 자막이 펼쳐졌다.

‘큰 사건이 터졌다’는 불길함과 ‘물을 세계 먹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내리쳤다. 급히 노트북을 펼쳤다. 늦었지만 긴급 기사가 나간 뒤였다.

바로 전화를 돌려 2보, 3보를 막은 뒤 옷을 입는 등 마는 등 차를 몰고 30분 거리의 국방부를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15분 만에 주파했다.

사상 초유의 천안함 사건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날 밤 국방부 기자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술 먹다 나온 선배,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다 불러온 후배, 나처럼 쉬다가 튀어나온 기자들...

작년 11월 대청해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초계하던 군함이 침몰함과 동시에 다른 초계함이 부상하던 물체에 함포 사격을 가하고, 대통령 주제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고, 국방부와 합참에서 긴급조치반이 가동되는 급박한 소식을 전하면서 ‘적어도 이건 국지전이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자정이 넘어 104명의 장병 중 58명이 구조됐다는 기사를 쓰고, 구조 소식을 밤새 전할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더는 없었다.

국방부 기자실은 그날부터 함수와 함미를 견져 올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꼭 한 달간 ‘전시 상태’였다. 보고 들리는 모든 것이 기사였다.

기자실 중앙 소파와 브리핑룸은 지원을 나온 기자와 인터넷 매체에 점령당했다.

하루 두 차례 열리는 브리핑은 겨우 기자들의 목을 축여줄 정도였지만 국방부 브리핑룸은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붐볐고, 기자실과 복도 할 것 없이 기자와 당국자 간 고성음 예사로 벌어졌다.

생존장병 58명과 실종자 가족의 만남과 오열, 함미와 함수 인양시의 처참했던 모습, 실종자가 시신으로 하나씩 발견되는 상황을 보면서 감정에 젖을 틈도 없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야 했다.

방송들이 종일 생방을 해대는 탓에 우리의 ‘주적’이 됐고, 현장 장면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탓에 헉헉대며 따라가기 바쁜 적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오보들이 넘쳐났고, 그때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됐다.

비록 연합뉴스 국방팀이 ‘발생’에서 물을 먹었지만 이후 한 달간은 모든 기사를 중심을 잡고 리드했다고 자부한다.

그 때문에 휴일을 반납하고 6시 출근에 새벽 1-2시 퇴근이 그리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다.

물론 잠 부족으로 눈에 핏줄이 터져 별건 눈을 하고 지내야 했지만 말이다.

덕분에 최근 한 달간 ‘오탈자’가 지난 10년간 보다 많았던 것 같다. 사내게시판에서 ‘불량품’이라고 지적했을 땐 참 야속하기도 했다.

“감정에 젖을 틈도 없이 수많은 기사 쏟아내”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됐다. ‘평시’로 전환되는 분위기이지만 유가족의 아픔과 우리 군의 허약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

군의 초동대응은 물론 보고체계는 허점으로 넘쳐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군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마저 들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합참 상황반장은 군함이 북한 공격에 의해 침몰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대령이란 계급장을 달고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누락할 수 있었던 말인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었다.

만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난다면 대양해군, 우주군을 외치던 군이 잠수함 하나 잡지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잠수함은 우리 해역을 제 집 드나들 듯 나다니고 있을테고, 그건 동해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란 생각까지 미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지난 한 달 봄은 왔으되 봄을 느끼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이번 참사는 온 국민에게 분단 현실에 대한 많은 것을 던져주었으리라 본다.

개인적으로 외교부 출입때 김선일 참수사건,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국방부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사회부 때 이용호게이트 그리고 수많은 남북회담 등 굵직한 사안을 취재했지만 이번 사건은 2000년 봄 기자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겪어본 가장 큰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

현장에 있었으니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는 국방부뿐 아니라 평택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이렇게 3각 포스트를 이뤄 유기적으로 취재가 잘 이뤄졌기에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시 세상속으로... 황광모(사진부) 기자가 촬영한 천안함 함미 인양 특종사진.



‘電氣를 사수하라’... 中 칭하이 지진 취재기

노트북.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에 애먹어

중국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4월 14일.

어렵사리 비행기표를 구해 칭하이 성도인 시닝(西寧)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진 출장은 2년 전 쓰촨(四川)성에 이어 두번째라 막연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사실 현장 도착부터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궁즉통’이라고, 기내에서 중국 기업인으로 부터 교통편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중국 기자를 2명 알게 됐다.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에 따라붙자”

지진 현장에는 ‘지진구조 차량’이란 마크가 있어야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2년 전 취재 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따라 구조대와 합류, 15일 아침 위수현으로 출발했고 현지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개구리복(군복)도 하나 얻어 입었다.

위수현은 시닝에서 8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로 달리면 15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어서 다음날(16일) 새벽 1시께야 도착할 수 있었다.

한국언론 첫 현장도착..개구리복 얻어입고 취재

한국 언론으로 처음으로 지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아뿔싸, 르포 1신을 빨리 보내야 하는데 차안에선 잘 작동되던 노트북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았다.

구조대는 다음날 아침부터 활동한다며 차 안에서 다들 잠을 청했다.

고민 끝에 차 안에서 휴대전화 액정 조명으로 취재수첩에 너댓 문장만 적은 뒤 국제부 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어설픈 기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다음 날 회사 네트워크부에서 배운 응급조치법을 취해 컴퓨터를 살려 놓았지만 문제는 마을 전체가 단전됐다는 것이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배터리는 계속 소진되는 상황이었다.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마을 한 바퀴를 쫓 돌았다. 멀쩡한 건물은 손에 꼽힐 정도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 있었다. 무너진 외양간에는 죽은 소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르포 2신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안타까운 마음은 이내 기사 전송을 위해 충전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뀌었다.

마침 구조대원 중 한 명이 공안국 지휘부 텐트에 임시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줬다.

무작정 공안국으로 쳐들어가(?) 플러그를 꽂은 뒤 무선 랜카드를 장착해 기사를 처리했다.

이후로는 ‘공안국인데 누가 훔쳐가겠어?’란 생각



홍제성 베이징 특파원

으로 겁없이 노트북을 꽂아두고 현장 취재를 다녔다. 문제는 휴대전화였다. 항상 휴대해야 했기에 늘 배터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베이징지사와 국제부에 꼭 필요한 보고만 하고 오는 전화만 받았을 뿐, 집에는 전화를 자주 못 했다.

4천900m 고산병 만만찮아..타이레놀 먹어도 두통

고산병도 만만치 않았다. 해발 4천900m는 생각보다 높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두통이 시작된 것.

타이레놀 진통제를 몇알 먹을 때는 두통이 완화됐지만 빨리 걸으면 산소가 많이 필요해서인지 두통은 다시 생겼고 나중에는 티베트 승려처럼 천천히 걷는 요령이 생겼다.

현장은 처참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쓰촨 때와 달리 아이를 살려달라며 목놓아 우는 주민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그저 구조대의 손길을 말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다.

텐트에서 숙식을 함께했던 우리 구조대가 구조에 참여한 것은 둘째날인 17일이었다. 군복을 입은 채 영상과 사진 촬영 등 현장취재를 하면서 이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교통 정리 등 측면 지원을 했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군복 입은 모습을 셀카로도 남겨 기사로도 처리했다.

다음날인 18일 회사 지시대로 오전에 현장에서의 마지막 기사를 보내고 15시간 거리를 달려 위수(玉樹)지역을 무사히 이탈했지만, 이재민들의 낯봄은 표정은 오래도록 머리 속에 남아 있다.

“삶과 죽음 교차하는 재해현장 많은 생각 들게 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재해 현장은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상을 떠난 자와 남은 자 사이의 희비, 남은 자의 슬픔, 국가란 존재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전기, 수도 등 평소 우리가 무심코 쓰는 사회적 인프라의 고마움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공기(산소)의 소중함도 뼈저리게 느꼈음도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기사 처리로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후배의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신 베이징지사와 국제뉴스부를 비롯한 여러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국제부 게시판을 통해 응원을 많이 해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지진으로 희생된 2천200여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노측 2기 편집위원 구성

편집권 독립과 공정 보도를 위한 사내 논의기구인 편집위원회의 2기 노측 위원이 짜여졌다.

노측 간사는 이주영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가 맡았고, 고흥규 공보위 부간사와 공병설 기협지 회장, 이울 공보위 총무, 안희 노조 조사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임 노측 위원들은 4월29일 사측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가졌다.

새 집행부에 바란다

“학원수강 보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 23대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노조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조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못하면서 늘 무언가 요구만 합니다.

이번에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또 한 번 담아왔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매년 수십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쓸까 동료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기때문이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취재하느라 바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은 있나 보네’라는 눈총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부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개선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한 가지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시체가 즐비한 충격적인 참사나 전쟁, 재난·재해를 장기간 취재한 기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보듬어줄 수 있는 노조가 됐으면 합니다.



박상돈 경제부

봄, 물꼬를 트자

새봄과 더불어 노동조합 23대 집행부가 출범한 데 대해 노조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축해본다.

그런데 시절이 철없는 탓인지 정말 봄이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번에 진수한 노조에 바람이 있다면 사내 소통의 물꼬를 좀 더 넓게 댔으면 하는 것이다.

흔히 언론사 분위기는 다른 직장에 비해 수평적이라는 말과 함께 ‘선배’, ‘부장’ 하는 호칭을 예로 든다. 하지만 ‘남’자가 빠졌다고, 더는 정강이를 걷어채지 않는다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됐다고 위안 삼을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선배-후배, 공채-특채, 정규직-비정규직을 따지며 불필요한 권력관계를 다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의 연로를 여는 소임을 맡은 우리 스스로 진정 자유로운 말 길을 트고 있는지 고민할 일이다.

노조는 노조원들이 스스로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열린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줬으면 한다.

물이 드나들면 가물었던 땅에서 다채로운 향연이 펼쳐진다. 오뚝한 봄이다.



함보현 국제뉴스1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틀 연속 쉬어봤으면”

연합뉴스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본다. 주말과 휴일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연합뉴스 기자는 주중, 주말 가릴 것 없이 다른 언론사 기자보다 더 바쁘게 현장을 누빈다.

내가 일하는 스포츠레저부는 주중보다 오히려 주말에 일이 더 많다.

박지성, 기성용, 신지애 등 외국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실시간으로 다뤄줘야 하는데 국내 야구나 축구 경기도 주말에 모두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1년 내내 주6일 근무를 한다.

주중에는 경기가 밤늦게 끝나 가족을 볼 수 없고, 주말에도 하루만 쉬다 보니 여행을 떠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일 때문에 직장 생활만큼, 아니 그보다 중요한 가족과의 추억 만들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직장인처럼 주5일 근무는 어렵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틀 연속 쉴 수 있도록 노조가 힘써주기 바란다.

강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스포츠레저부

‘휴가’ 의무일수 꼭 채울 수 있어야

새롭게 출발한 제23대 노조 집행부에 지지를 보내며,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간지나 방송보다 업무 강도가 센 통신사 기자는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노조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사원들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가 1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틀을 제외하면 열흘입니다. 그러나 열흘을 다 채운 사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통상 여름에 3~5일의 휴가를 내고 연말이 돼서야 의무휴가 일수를 채우기 위해 부랴부랴 1~2일씩 몰아서 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어진 의무휴가 일수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의무휴가를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안 가는 일은 없도록 부서별 평균 의무휴가일수 사용 현황을 연초에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재충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업무 효율도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미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달의 참글상

참글상 대상에 특별취재팀 안승섭 조합원 우수상에 사회부 김승욱 조합원

공정정보위원회(간사 이주영)는 제165회 이달의 참글상(대상)에 특별취재팀 안승섭 조합원의 “야근 인정해달라..한 IT 근로자의 절규”(3월 송고분)를 뽑았다.

또 제164회 이달의 참글상(우수상)에 사회부 김승욱조합원의 “SAT 스타 강사 제프리 손학력도 ‘뺨튀기’”(2월 송고분)를 선정했다.

안 조합원의 기사는 살인적인 야근과 초과 근무로 폐를 잘라낼 정도로 몸이 망가졌는데

도 사용자측이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야근수당도 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의 실상을 폭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조합원의 기사는 실력이 아닌 편법을 무기로 삼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젊은이의 실상을 밝히고 돈이 된다면 내실은 따지지 않는 학원가의 비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사

“기쁜 일은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후배 동료 여러분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23대 노조를 맡은 문성규입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황에서 결승선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365일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글로벌 차원의 무한경쟁이 격화되는 지식혁명 시대에 감히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봅니다.

회사의 장·단기적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노조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들의 신분 보장, 권익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옥 재건축과 방송 진출, 뉴미디어 사업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한 치의 오류나 실책도 생기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내 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계창,진규수 사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언로를 띄우고 소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정신인 사회 통합과 선진국 진입,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사가 되도록 힘을 실겠습니다.

올해 예정된 노조의 경영진 중간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편집,경영,인사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고 정도를 견겠습니다.

조합원의 기쁜 일은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사

“조합원 지지 덕분에 복지향상, 공정보도 활동”

노조일을 맡은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제 22대 노조를 굳건하게 지켜와 준 집행간부들,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와 위원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노조가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공정보도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당당히 벌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조합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조 전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합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현안이라도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어려울 것이 없겠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저 또한 충분히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선후배간 소통만 잘 되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노조 전임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노조 전임은 조합원들을 위한 ‘공익근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셈입니다.

요즘 저는 지하철 출입구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전단지지를 주면 일단 받습니다.

제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선전물을 돌려봤더니 바쁜 와중에도 제가 주는 선전물을 받아주는 행인들이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상도 얼마나 좋아보이던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노조 창립 제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지난한 노력을 통해 훌륭한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한다면 더 멋진 노조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오늘 출범하는 제 23대 노조가 그 어느 집행부보다 더 당차게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승호
제22대 노조위원장